

이준익 감독의 '온더' 세계... "불멸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

첫 OTT 드라마 연출...영화와 구분 짓지 않아 '삶과 죽음, 영원한 행복은 무엇인가?' 질문 던져

영화감독 이준익(63)은 티빙 '온더'를 드라마로 한정 짓지 않았다. 그 동안 영화만 열네 편 만들었고, 드라마 연출은 온더가 처음이다. 영화는 약 2시간 분량이지만, 오히려 드라마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으로 옮겨왔기에 '리닝타임·회차에 구애 받지 말자'고 마음 먹었다. 요즘 리닝타임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며 "(총 6부작으로) 매회 25~30분 분량의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루고, 현실과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넘나들며 이야기가 전개 돼 'SF 장르물의 경계선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 드라마는 '재현(신하균)이 세상을 떠난 부인 '이후'(한지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미지의 공간 온더에 초대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죽은 자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세계 온더를 마주한 다양한 균상을 통해 '삶과 죽음, 영원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14일 막을 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온 스크린 섹션에 초청, 관객들에게 먼저 선보이기도 했다. 티빙과 미국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가 처음으로 공동 투자했으며, 내년 상반기 해외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 파라마운트와 협업하고 글로벌 공개하는 건 모르고 시작했다. 살짝 걱정도 됐다.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응원 받지 못한 작품이 해외에서 잘 되겠느냐. 적어도 전 세계

공개했을 때 '망신당 말자'고 생각했다. SF라는 미래 설정은 서양에서 개발한 이야기 세계관인데, 흥내 내면 분명히 조롱 당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들의 근거성을 너무 배제하면 황당할 수 있기에 면밀히 경계선을 잡았다. 영화와 OTT는 피드백 오는 게 다른데, 온더는 아직 성과가 안 나온 것 같다. 이제 시작이다."

2011년 출간한 소설 '굿바이 온더'가 원작이다. 당시 이 감독은 "과격적인 소재가 신선했다"며 7~8년 전 영상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썼지만 었었다. 영화 '자신아 보'(2021)를 찍은 뒤 "사극에서 약간 멀어지고 싶었다"며 "온더를 다시 한 번 꺼내보자" 싶었다. 이전에 쓴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르다. 욕심을 덜고 본질에 충실했다. SF 장르물의 거대한 요소를 기대할 수 없지만, 미니멀화 해 가장 깊은 곳을 바라봤다"고 귀띔했다. 스태프 모두 영화 연출할 때 함께 해 "경계는 전혀 없었다"며 "인풋은 같고 아웃풋만 달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과연 관객들이 리얼리티를 복제하는 걸 동의하겠는가?'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게끔 현실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가상세계로) 옮겨다. 메타버스의 이질감을 줄이고 같은 인물이 다른 공간에 가도 기억의 연결선이 이격되지 않도록 하고, 두 주인공 관계도 밀도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OTT가 생겨나면서 극장에서 보지 못한 세계를 폭넓게 경험할

지만, "깊이있는 이야기에 관한 갈증은 더욱 커졌다"고 털어놨다.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로 '킬링타임'의 쾌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영화를 보고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이빙타임' 작품도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더는 10년 후 안락사가 합법화된 세상을 다뤘다. 현실의 삶을 버리고 안락사를 선택, 온더 세계로 가는 모습을 통해 '과연 영원은 아름다운가'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아름다운 기억이 소중한 것은 그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재현의 마지막 대사가 울림을 줬다.

"인간은 수천년 전부터 불멸을 꿈꿔 왔다. 죽음이 갖고 있는 무한성은 디지털의 무한성을 맞이했다. 유한을 벗어난 무한의 존재 개념은 기억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원작에서 '불멸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는데, '누군가의 소멸로 내가 존재했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내가 소멸하는 게 올바른 세상인가?' 싶더라. 인간의 이기심으로 불멸을 꿈꿔, 그 이기심 때문에 인간은 더 불행해졌다."

주역인 신하균(48)과 한지민(40)을 향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좋은 사람'(2003) 이후 20년만에 다시 만났다. 이 감독은 두 사람 덕분에 "SF 장르가 휴먼 멜로 물이 됐다"며 극찬했다. "재현 캐릭터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며 "신하균이 안 나오면 장면은 단 한 신도 없다. 이야기의 생경함을 끝까지 몰입할 수 있게 하려면, 한 사람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했다"고 주장했다. "온더에 가면 한지민이 주제가 되고 신하균이 대상이 된다"며 "한지민이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과거 오프라



"신하균은 멜로가 되더라. 멜로는 '나 너 사랑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당신을 여기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멜로다. 두 사람은 부부 역인데, 현장에서 만날 장난치고 남매 같았다. '운명적인 케미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닐까?' 싶었다. 촬영장 밖에서는 정말 애정하는 오빠와 동생 같았고, 각자 독립된 존재로서 빛났다." 이 감독은 완강이 넓은 나이에도 감각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주로 사극을 연출했지만, 누구보다 디지털 세계에 밝았다. "가상 세계 안에서도 다음 단계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메타버스가 인류가 꿈꾸는 세상의 종점이라면 그 또한 너무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후는 "나 여기 있어"라는 대사를 반복하는데,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과거 오프라

인·아날로그 시대는 존재가 사라지면 부재이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로 쪼개지지 않느냐. 오프라인 속 존재가 사라졌다고 온라인에서 부재하느냐. 존재한다"고 했다.

"온더는 SF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미 존재하는 리얼리티를 10년 뒤 안락사라는 설정을 통해 바라봤다. 지금은 안락사가 합법이 아니지만, 10년 후에는 내 문제가 될 것 같다. 관객 개인·세대 차도 있을 텐데, 온더를 '공포 영화'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 각자의 개인·세대·입장·경험차를 바탕으로 요소마다 어울리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죽음이라는 소재 특성상 때문에 본인도 맞지 않아서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데, '좋은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뜨겁게 안녕' 첫 방송 앞두고 관전포인트



'뜨겁게 안녕'이 첫 방송을 앞두고 관전포인트를 공개했다.

MBN 힐링 예능 '뜨겁게 안녕'은 세상의 모든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MC인 '안녕지기'로 그룹 'S.E.S.' 출신 유진, '썸스키스' 출신 은지원, 개그맨 황제성이 함께한다. '안녕지기'는 사전에 게스트가 보낸 '하이 바이 박스'를 풀어보며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하루를 선물할지 고민한다. '하이 바이 박스'는 게스트가 '뜨겁게 안녕'을 고할 물건을 넣어 보내는 상자다.

세 사람은 게스트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먼저 게스트가 박스에 함께 보낸 '위시리스트'를 이뤄주기 위해 열심히 된다. 첫 게스트인 흥원기도 두가지 소원을 담은 '위시리스트' 카드를 전한다.

은지원은 흥원기와 여동생에게 먼저 말을 걸며 챙겨주고, 유진은 정원에 있는 바질을 따와 웰컴푸드에 데코레이션을 하는 센스를 발휘한다. 황제성도 게스트가 편안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즐겁게 만든다.

'안녕하우스' 마지막은 '하이 바이 룸'이 담당한다. 게스트들이 방에 홀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가족들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간 흥원기가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는 전언이다.

제작진은 "게스트들이 '하이바이 룸'에서의 시간을 통해 안녕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며 "지난 날을 되새기고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깊은 감정을 표출시킨다. 누구나 가슴 한 칸 갖고 있는 이야기의 힘을 전해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 전했다.

'뜨겁게 안녕'은 10월 31일 첫 방송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여파로 결방한다.

'불후' 측, '패티김 특집' 녹화 취소

가수 패티김의 '불후의 명곡' 녹화가 취소됐다.

10월 30일 KBS 2TV '불후의 명곡' 제작진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가예도기간임을 감안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불후의 명곡-아티스트 패티김' 편을 녹화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특집 녹화 무대는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참사로 인해 제작진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취소된 특집 녹화는 오는 7일 재계된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께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야외 마스크 해제 후 첫 할러윈데이를 앞두고 인



파 10만명 이상이 몰렸고, 다수가 넘어지면서 사고 원인은 압사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151명, 부상자는 8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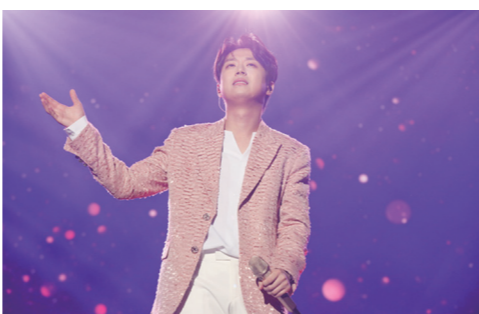
이지한, 안방극장 데뷔 앞뒀는데...유작된 'MBC 폭두의 계절'

임수향 전 남자친구 역 캐스팅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 이지한(24)이 드라마 촬영 중 이태원 참사를 당해 안타까움을 줬다.

10월 31일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지한은 연말 방송예정인 MBC TV 폭두의 계절 촬영 중이었다. 2019년 웹드라마 '오늘도 남편한 하루'에 출연한 적 있지만, 지상파 드라마 출연은 처음이다. 결국 안방극장 데뷔작은 유작이 됐다. "촬영을 다 마치지 못했다"며 "아직 촬영분 방송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할 수 없다"...관객 폭언·몸싸움



가수 이찬원이 이태원 참사 참사를 애도하는 취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

이 드라마는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러 이승에 내려오는 사신(死神) '폭두'(김정현)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의사 '한계절'(임수향)의 로맨스다. 이지한은 계절의 전 남자친구 '정이든'에 캐스팅됐다.

폭두의 계절 측은 "이지한 비보에 촬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재정비 후 촬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한은 29일 오후 10시께 이태원에서 발생한 암사 사고로 사망했다.

빈소는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했다. 발인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30분이다.



'스맨파' 결승 연기...이번 주 프로그램 결방

'이태원 참사' 국가 예도기간 동참

케이بل 음악채널 엠넷(Mnet)이 이번 주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연이어 결방한다. 이태원 참사 국가 예도기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엠넷은 10월 31일 공식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이날 방송 예정이던 '아티스타 게임', '스맨파 코멘터리'가 결방된다고 공지했다.

또 11월1일 예정됐던 '스트리트 맨 파이터(스맨파)' 결승전도 연기한다. 같은 달 3일과 4일 각각 예정됐던 음악방송 '엠카운트다운'과 '쇼

미더머니' 시즌 11도 결방한다.

'스맨파' 측은 이날 예정돼 있었던 어때·원 밀리언 등 탈락 크루 인터뷰 스케줄도 취소했다. 오는 11월 5~6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열 예정인 '스맨파' 콘서트 '온 더 스테이지(ON THE STAGE)' 스케줄 역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계는 방송과 콘서트 취소·앨범 발매 연기·콘텐츠 공개 취소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참사 애도에 동참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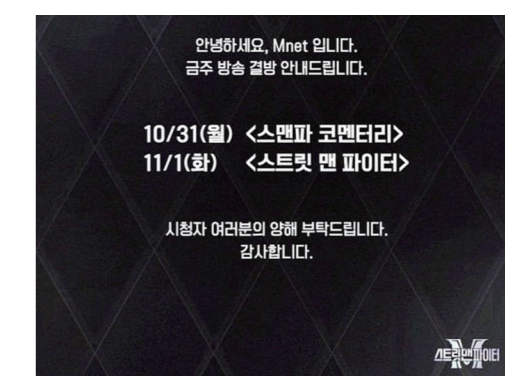
화순군에서 열린 제1회 테마파크 소풍 가을 대축제 참석

했다가 무대에 난입한 관객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찬원은 10월 30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제1회 테마파크 소풍 가을 대축제에 참석했다. 그러나 전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로 국가예도기간이 선포됐고, 이찬원은 "현재 국가예도기간이라 노래는 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관객에게 양해를 구했다.

앞서 이찬원 측은 팬카페를 통해 "국가예도기간이라 이찬원의 무대는 진행되지 않는다.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만 노래는 진행되지 않는다. 행사장에서 함성 및 박수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관객은 아쉬움을 보였고, 특히 한 남성은 무대에서 내려온 이찬원에게 다가가 폭언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매니저의 목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취소가 힘든 공연예선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5일까지를 국가 예도기간으로 정했다.